

28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532.78 (-88.97)	743.96 (-26.89)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566 (-0.026)	1460.00 (+17.00)

metro 경제

여야
조기 대선 레이스
불 붙는다
06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뉴메트로 10주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월세 부담에 버티는 것도 한계”... 자영업 폐업 속출

Q & A ‘불황기’ 상권 둘러보니

경기 침체에 비상계엄까지 연달 연초 특수 사라져 타격
명동·홍대는 관광객 덕 선전
오프라인은 온라인에 밀려

“그나마 예전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올리지 않아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어려워졌어요.”

10년간 학원을 운영해 온 A(48)씨는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그는 “상가를 나갈 때 원상 복구 의무가 있는데, 지금 그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일부 상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과 2030 고객층을 바탕으로 버티고 있지만,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점점 더 무거운 부담에 비틀거리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3면〉

지난 주말 서울 송파구의 상업 지역을 둘러보니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한 거리에서는 3개 이상의 상가가 연이어 공실로 남아 있었고, 통임대 현수막이 걸린 건물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내부가 텅 빈 대형 건물에는 ‘병의원·카페·사무실 임대’라는 문구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명동 거리에 폐업한 가게들과 임대문의가 즐비하다. /손진영 기자 son@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월세는 해마다 오르는데 장사는 안되고, 계약 기간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임차인들이 많다”며 “예전에는 공실이 생기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임차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카페와 술집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의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2000개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86.7%(314만개)는 빚이 있어도 영업 중이지만, 13.3%(48만2000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568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185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부진과 게임 등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작년 매출이 2023년보다 더 적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불황 속에서도 일부 상권은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 젊은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꾸준한 성수, 홍대, 청담 등의 지역은 공실이 적은 편이다. 이 외 지역에서는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의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홍대·청담 등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상권의 공실률은 소폭 감소했으나, 가로수길과 한남동 상권은 각각 4.9%, 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B(20대 후반)씨는 “카페나 음식점은 2030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가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아니면 버티기 힘들다”며 “성수, 홍대, 청담 같은 핫플레이스가 아니면 공실이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명동과 홍대 일부 지역은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내수 소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의 직원은 “한국인 손님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한국 손님이 오더라도 대부분 해외로 출국을 앞두고 선물을 사러 오는 경우”라고 전했다.

쇼핑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1세대 K뷰티 브랜드로 불렸던 ‘네이처리퍼블릭’, ‘에뛰드하우스’, ‘스킨푸드’, ‘홀리카홀리카’

社告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25일(화)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는 난세(亂世·힘든 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재테크 전략이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고령화시대 재테크, 증여·상속세 절감, 부동산 투자 전략 등을 모색합니다.

- ◆ 행사명 : 2025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 일 시 : 3월 25일(화) 오후 2시~5시1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30분~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등의 단일 브랜드 매장은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를 H&B스토어 ‘올리브영’과 생활용품샵 ‘다이소’가 대신하고 있다.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계 ‘허

브’로 거듭난 편의점도 순증수를 감췄고, 그 자리를 H&B스토어 ‘올리브영’과 생활용품샵 ‘다이소’가 대신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넥스트레이드 출범... 2주간 10개 종목만 거래

코스피 제일기획 등 5개사
코스닥 YG엔터 등 5개사

4일 출범하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를 이끌 주도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3면〉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4일부터 14일까지 NXT 거래 종목은 10개 종목이다. 코스피 5개 기업 ▲롯데쇼핑 ▲제일기획 ▲코오롱인더스트리 ▲LG유플러스 ▲S-Oil과 코스닥 5개 기업 ▲골프존 ▲동국제약 ▲에스에프에이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오늘 영업을 개시한다. /뉴시스

이 ▲YG엔터테인먼트 ▲컴투스다.

제일기획은 꾸준한 실적 성장과 대표적인 배당주로 꼽힌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제일기획가이드는 매출 총이익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 및 영업이익률 증가”라며 “극적인 업황 개선은 요원하나 디지털 및 리테일 중심 대형 영역 확대와 비계열 광고주 개발에 따른 외형성장, 자회사 영업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증권가는 S-Oil의 실적 성장에도 주목한다. NH투자증권은 올 1분기 S-Oil 영업이익을 3296억원으로 예상했다. 래깅 정제마진 강세와 공식판매가격

(OSP) 하락세여서다. 시장 예상치는 2494억원이다.

LG유플러스는 실적과 주주환원이 주가를 이끌 전망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주주이익환원 규모는 3500억원, 2026년에는 3500억원 이상을 예상한다”며 “주주이익환원 규모 증가율이 25%에 달하는 반면 주가 상승폭이 미미해 이에 합당한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쇼핑은 주력 부문의 외형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 사업 부

문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흥국증권은 롯데쇼핑의 올해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18.2% 증가한 5592억원으로 예상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실적 전망이 엇갈린다. 이진명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추정치 하향과 코오롱글로벌 서초 스포렉스 양수에 따른 순차입금 증가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4만원으로 낮춘다”고 했다.

크의 월드투어가 예정되어 있어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욱 크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블랙핑크가 7월 한국을 시작으로 10개 도시, 13회 공연을 진행하는데 스타디움급 공연이 주를 이룬다”며 “공연당 관객 수가 5만 명대로 (지난 공연보다) 많이 늘어나 콘서트 수익은 물론 MD 매출의 두터운 성장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한편 NXT 출범으로 4일부터 국내 주식 시장의 거래 시간은 현행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으로 확대된다.

/허정문 기자 zekova@

메트로 한줄뉴스



▲ 민주당 “하루빨리 윤 탄핵 심판 이뤄져야... 중도층은 이미 파면”
▲ “진보·보수 갈등 가장 심각”... 사회갈등 인식, 6년 만에 최고 /사진뉴시스

▲ 이준석 “국힘과 연대? ‘개혁’ 여부가 판단 기준”
▲ 與 “상속세, 징벌적 과세로 변질... 당장 개정 논의 시작해야”

▲ 與 “취약계층 선물카드”로 ‘25만원 지원금’에 맞불... 민생주도권 잡기 나서
▲ 민주당, 6일 근로소득세 개편 토론회... 상속세 이어 감세 추진